



관조 스님 유작展  
‘몽골초원과 유목민의 삶’  
국립청주박물관  
9월 30일까지

관조 스님 작 '오보'

### 일초 스님 日서 범패 · 작법무 시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과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 스님을 비롯한 이수 · 전수생 30여명이 7월 27일 재단법인 일 · 한 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일본 동경 쓰끼지 혼간찌 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범패 · 작법무를 시연했다.(사진)

이번 공연은 지난해 4월 일 · 한문화교류협회로부터 인천무형문화재인 범패 · 작법무를 시연함과 동시에 일본 궁중악단의 전통 아악을 함께 공연

해 양국 전통예술의 한미당을 펼쳐보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

이날 공연은 일본의 궁중악단의 전통 아악 시연에 이어 범패 · 작법무 일 · 한 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일본 동경 쓰끼지 혼간찌 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범패 · 작법무를 시연했다. 1만여 관객이 관람한 이번 공연의 효황으로 (제일 · 한문화교류재단은 매년 8~9월 중 정기 공연과 전 일본 투어 공연을 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 대초원의 삶 · 죽음 · 자연

# ‘觀照’

국립청주박물관은 9월 30일까지 박물관 내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관조스님’ 유작 사진전 ‘몽골초원과 유목민의 삶’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조스님이 1999-2006년 몽골을 오가며 찍은 사진 3천여 컷 가운데 몽골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80여 컷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는 관조스님의 문도대표인 승원스님(백련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 국립청주박물관의 전시기획을 이해하고 관조스님이 수년간에 걸쳐 촬영한 몽골사진을 흔쾌히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작년 11월 20일 세수 64세, 법랍 47세로 입적한 관조스님은 14세에 법사에서 출가해 17세인 1960년 동산스님으로부터 사미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1965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으며 1973-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제7대 강주를 지냈다.

관조 스님은 ‘觀照’라는 법호가 나타내듯이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사물과 자연을 관조하며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무언으로 전해주는 독특한 참선과 포교를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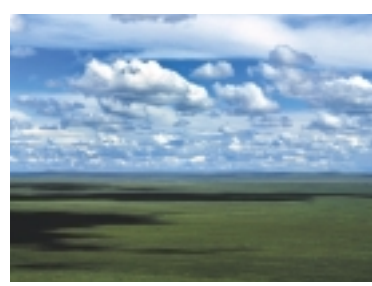
또한 부산 범어사에 머물며 독학으로 사진기술을 익힌 관조스님은 1980년 사진집 <승가>를 시작으로 <승가> <열반> <자연> <수미단> <대웅전> <생멸> 그리고 <윤회> 등 많은 사진집을 발간했다. 특히 2003년 펴낸 <한국의 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를서전 조지위원회가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국립청주박물관 강원표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 작품들중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대초원과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 그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맑은 눈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 줄 것”이라며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몽골의 자연과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박물관은 8월 18 · 25일 청명관 강당에서 ‘몽골의 음식문화’ 등에 대한 초청 강연회도 열 예정이다. (043)255-1632

김주일 기자



관조 스님 작 '몽골 어린이들'



관조 스님 작 '몽골의 초원과 하늘'



관조 스님 작 '님담축제'



관조 스님 작 '암각화'

## 한국 불교 위상 패션쇼로 승화

### 해인사,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등재 기념 문화축제

우리나라 성보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와 클래식 산사 음악회가 함께 열린다.

경남 합천 해인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칠월칠석에 맞춰 마련하는 ‘2007 비로자나데이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이 비로자나 축제는 현존최고목조불상인 쌍둥이 비로자나불을 기념하기 위한 것. 해마다 이벤트를 마련해 특색 있게 꾸며진다. 칠석날 하루 전인 8월 18일 해인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팔만대장경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 등재 결정 기념 축제다. 그래서 콘서트와 공연, 관객 체험

### 강부자·이보희 등 대거 출연 클래식으로 구성된 음악회도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한복 패션쇼와 산사음악회로만 구성된다.

큰 주제를 보면 단순하지만 출연진을 찬찬히 살펴보면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하는 메머드급 패션쇼를 뺀다는 규모다.

탈런트 강부자·이보희·윤정희·류태준·정겨운·신동미 등과 인기그룹 클래지파이, 피아니스트 박종훈, 테너 김남두, 소프라노 박정숙, 명창 김영옥 등 스타급 문화 예술인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축제의 1부는 김혜순 한복 패션쇼다. 드라마 ‘황진이’와 영화 ‘천년학’ 등에서 의상 담당을 한 디자이너 김혜순씨가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의상들을 선보여 우리나라 전통 한복에 새 미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무대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함께 가야산을 지키는 아름답고 기품있는 여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산문(山門)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환란을 이겨내기 위한 왕과 왕비, 비빈(妃嬪)들의

정성을 담은 기원행렬이 이어지고, 그 정



지난해 열린 해인사 '비로자나축제' 모습.

성으로 팔만대장경이 탄생하게 되며, 이후 태평성대를 맞는 과정이 다양한 의상과 함께 소개된다.

2부 산사음악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60인조로 대편성된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비제의 ‘카르멘’ 서곡을, 피아니스트 박종훈씨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가야금 4중주단 여율이 Fly me to the moon, 소프라노 박정원씨가 ‘축배의 노래’ 등을 잇달아 선사한다. 행사의 진행은 前 MBC아나운서였던 최현태씨가 맡는다.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의 전통미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재확인해 볼 수 있는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가 앞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리허설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055)934-3000

김주일 기자

###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⑬

#### 간월도 간월암

정인성 시인

갯바위에 홀로 앉아  
빛방울에 젖어드는 간월암을 건네본다.  
원종일 스피커를 받쳐들고  
반야성경을 읊어대는 팽나무가  
철장을 지키는 수좌승 같다  
빛줄기에 촉촉이 젖어드는 바다를  
갈매기가 비잉 들다 되돌아간다.



간월암(間月庵)-민공선사께서 간월도 해변가에 세운 복된 도량이었으나 지금은 쇠락의 기운이 짙어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김주일 기자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차

## 茶心마루 소나무쟁반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쟁반

대(大) : 49cm X 27cm 사이즈 모습입니다. 위의 다기는 장식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 플라스틱 쟁반과는 다릅니다.

소나무원목 다기쟁반은 소나무 통편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수공예 제품으로, 소나무의 온온한 무늬결과 소나무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기상이나 찻상으로도 사용하시면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기있는 행주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향이 소나무의 무늬결이 살아납니다.

소 39cm X 22cm

중 44cm X 24cm

대 49cm X 27cm

특별 할인가  
3종 세트 5만원

소나무 쟁반 한 세트 (3종)  
도매가 문의 : 080-999-1080

※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mm 내외)

**1 세트 5만원 (배송비 무료)**  
**10세트 이상 구매시 도매가 공급**  
생산지 : 중국 (OEM 생산)

**주문처**

**080-999-1080**

농림: 177483-51-071977 (예금주: 전소현)

# 장뇌산삼재배

## 새로운 임이자테크

국내 최대 장뇌산삼 재배단지인 "장생고려산삼영농조합"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고소득 특화품목"  
우수종자·종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체계적인 종자·종묘의 보급

■ 장생은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원주본사 농장견학 및 자체교육 실시
- 원주본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 제공된 인근지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전국 45개 시·군)

■ 신뢰할 수 있는 장생

- 장생산삼농장
- 장뇌산삼

■ 장생의 3대 추진사항

- 1 우수종자·종묘의 보급**
- 2 행정절차의 지원**
- 3 재배기술의 지원 및 교육**

■ "장뇌삼(산양삼)"

- 신빙성 확보를 목적으로 선정
- 농가에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전라목적으로 집중육성

장생고려산삼영농조합법인  
장생산삼연구소 장생산삼박물관  
389길 공화영로5 농성리4번 및 5번에 드십니다. www.kjinsang.co.kr

■ 장생연구소 및 박물관

■ 시립상차서

■ 발아실보육서

• 농장규모 및 면적 : 원주 제1농장, 포천 제2농장을 포함하여 총5개의 농장에서 20여년간의 재배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뇌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국내최대규모의 영농조합 • 발아실보육서 발급 • 시립상차서 발급

매일 오전10시, 오후2시 자체교육실시 **가을파종 예약 접수 중** **상담 및 문의: 0331747-7637-8**